2024년도 M HUB 활동 보고

미야자키시 종합정책부 국제정책과

목 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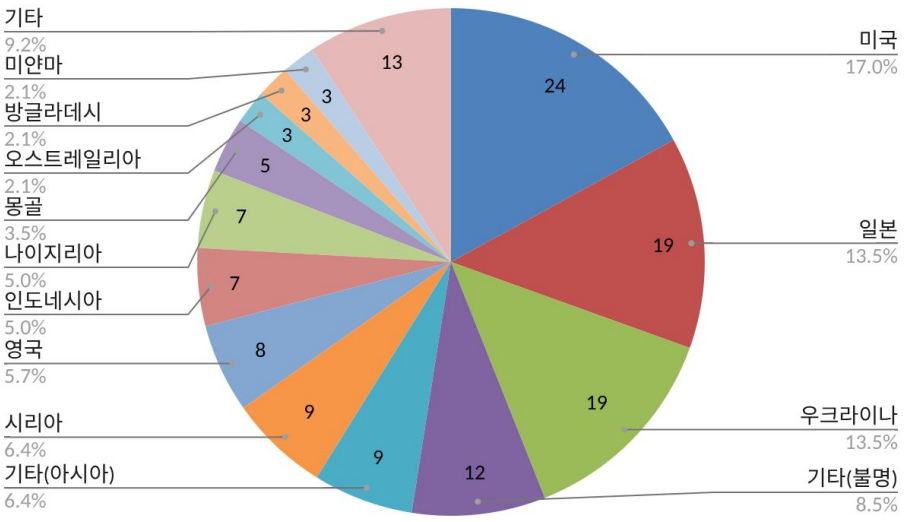
(1) 2024년도 상담 실적 (P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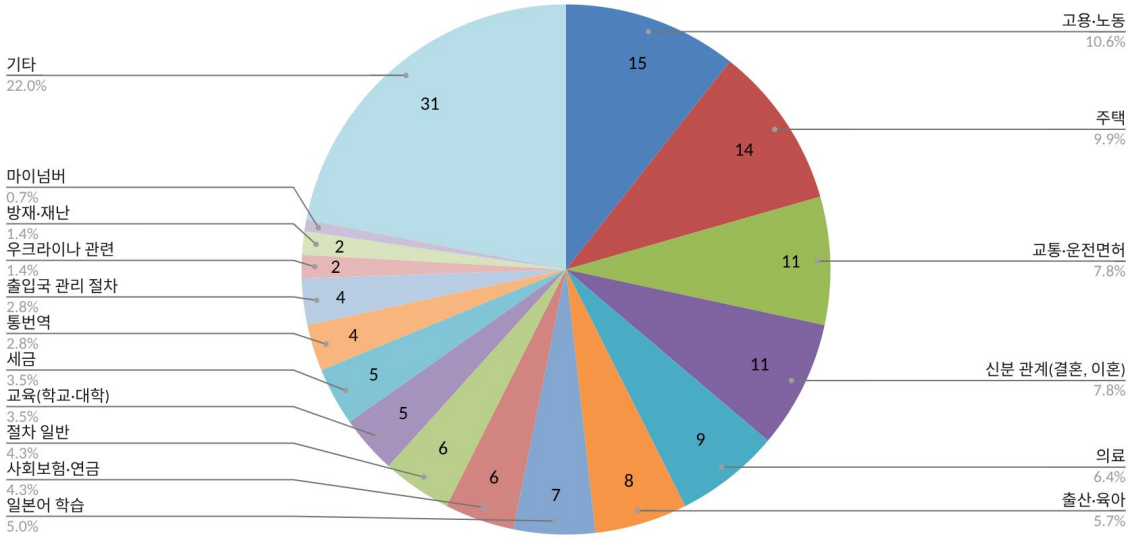
(2) 상담 사례 및 활동 (P4~7)

(1)2024년도 상담 실적

○24개국, 141건의 상담이 있었습니다.

・미야자키 공립대학에 사무실이 있기 때문에 유학생들의 질문이 많았으며 국가별 건수는 실제 외국인 비율과는 다른 결과를 보였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피난해 오신 분들로부터 다수 상담이 있었습니다.
・상담 내용이 다양하여 특별히 많은 항목은 없었으나 취업, 주택, 운전면허 관련이 상위 3개 항목입니다.
・일본인들의 외국인 관련 문의도 많았으며 외국인 고용과 주택 제공, 불만 사항 등에 대한 문의가 있었습니다.





(2) 상담 사례 및 활동

외국인 간의 결혼 절차 지원

미야자키시에서 결혼하고 싶은데 본국의 정세 불안으로 필요한 서류를 준비할 수 없음.

→시청 주민계에 혼인 요건을 확인하고 대사관에 직접 내용을 전달하여 서류 작성을 의뢰. 대사관에서 본인 확인한 후 서류를 발급. 시청 창구에서 혼인신고서를 접수.

건강검진 때 동행

아이의 두 살 반 건강검진에 가고 싶은데 언어가 통하지 않아서 내용을 이해하지 못함.

→미야자키시 보건소에 내용을 확인. MHUB에서 직원을 파견하여 통역과 서류 작성을 지원. 다음 건강검진도 지정 병원에 인계하여 예약했음.

외국인들도 한 시민으로서 지역과 연결되어 애착을 가지고 생활할 수 있는 미야자키시로 만들어 가고 싶습니다.

(2) 상담 사례 및 활동

일자리 관련 상담 시의 진행 절차

①필요한 정보를 꼼꼼히 파악함.

일, 아르바이트, 일본어 능력, 근무 시간, 희망 직종, 재류자격, 통근 수단 등

↓

②헬로워크(공공직업안정소) 및 민간 구인 정보, 사업체 정보를 통해 일자리를 찾음.

이력서 작성 및 번역 등 지원

면접 예약 지원

필요에 따라 통역을 겸해 헬로워크에 동행

※향후 구직 활동의 범위를 넓히는 데 필요할 때 일본어 교실 등을 안내

구직 대응 시의 과제

▪ 일본어로 의사소통이 어려운 외국인에 대한 구직 정보가 부족하다

▪ 유학생도 일하기 쉬운 음식업 등의 아르바이트 정보를 파악하기 어렵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노동력이 부족한 미야자키시에서도 바로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경우도 있음.

(2) 상담 사례 및 활동

주택에 관한 상담이 있었을 때의 진행 절차

①아파트, 단독주택, 방 구조 및 지역 등 상담자의 희망 사항을 확인.
조건 등에 대해 상세히 청취.
임대 계약의 일반적인 규칙 등을 설명.(보증인 제도 및 입주 심사, 보증금 등)
↓
②민간 부동산중개 업체나 공공 주택 등을 안내.
부동산중개 업체와의 상담 및 견학 예약을 지원
필요에 따라 통역을 겸해 동행
공공 주택 신청 절차 지원

부동산 임대차 계약 시의 과제

- **부동산중개 업체에서 소개 가능한 물건 수가 충분하지 않음.**
  생활 습관 차이, 과거 대출로 인한 문제, 보증인 문제 등.
- **보증인이나 비상 연락처를 확보하지 못한 외국인이 많음.**
  보증 회사를 통한 월세 보증 외에도 보증인이나 연락처를 필수로 요구하는 때도 있음.

(2) 상담 사례 및 활동

6월 M HUB 개설

미야자키시 외국인 원스톱 정보센터 설치. 직원 2명 체제로 번역기를 사용하여 17개 국어 대응.

7월 이벤트 'M HUB 회의'

미야자키시 거주 외국인 10명과 시장의 토크 세션.

9월 이벤트 '월드 페스타 2025'

미야자키 청년회의소, 미야자키현 국제교류협회 공동 주최 국제 교류 이벤트. 외국인 대상 상담 창구 'M HUB' 설치와 방재에 대해 외국인에게 PR 활동.

2월 이벤트 'MHUB FUN SPORTS!'

미야자키 거주 일본인과 외국인의 교류 이벤트를 실시. 보치아, 커롤링 등 누구나 간단히 할 수 있는 스포츠를 통해 국제 교류 활동.